

문화방송 노보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강연섭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789-3881~6
www.mbcunio.or.kr
2022년 9월 16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총력투쟁으로 쟁취해야

정기국회 시작...국민의힘, 과방위 파행 유도

지난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돌아가고 있다. 방송법 등을 심의하는 과방위 제2소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나아가 정부여당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훼방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4월 당론으로 확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후 과정을 냉정하게 고려하면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논의될 시점은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이후인 10월말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짜 문제는 이 때부터다. 과방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도 염두에 뒀야 하는 상황이다.

MBC 암흑사...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년 전 조합은 파업 이후 'MBC 재건'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만나면 좋은 친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지배구조 개선임을 분명히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진실이 은폐된다며 정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요구했고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은 감사원,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방통위와 공영방송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부 방통위 위원 임기 종료와 MBC 사장 선임 등이 예정돼 있는 내년 2월 이후 현행법에 따라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남은 100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3



2018.8



2020.10



2021.4



2022.5



2022.9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쟁취

집중행동 돌입 결의대회

- 2022.9.21(수) 14시
-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2022년 임·단협 본교섭 개시

"조직의 미래를 위한 지혜·결단 모으자"

문화방송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 및 2022년 임금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최성혁 본부장 등 조합측 교섭위원 7명은 지난 6일 본사 박성제 사장, 김낙곤 광주MBC 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 8명과 함께 임단협 본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조합은 2년 전 사장 정책발표회 신설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단체협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두 달여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2019년과 2020년에 체결된 단협이 모범적인 단협이기에 큰 틀은 유지하되, 공정방송을 방송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 조건으로 명시한 단협의 정신을 계승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 및 보완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조합은 본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에서 조직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가 지혜 및 결단을 모으기를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환경이 예측불허로 흘러가고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쟁탈을 끝내야 하며, 단협은 조직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혁 본부장도 단협은 노사 간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것이지만 경영진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과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방송노동자의 핵심적 노동 조건인 공정방송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측도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열린 마음과 조직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단협 협의에 임하겠으며, 성실히 교섭해 빠른 시기에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아울러, 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등 조합 측 우려에 대해 하반기 광고시장 위축 등 경기 불황 파고를 잘 넘겨 흑자를 내고, 성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지난 두 달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담은 개정안(조합안)을 어제(15일) 대의원회를 통해 승인받았으며, 임금 협상에 있어서도 24년 만에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구성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 되도록 협상할 방침이다.





2022 임협 기본급 6% 인상해야

IMF 이후 24년만에 물가상승률(6%) 최고치 예상
언론사별 올해 임금인상률(6~7%) 형평성 고려
작년에 이어 올해 경영수지 개선 전망

실질임금 하락 상쇄

임금인상 필요

단체 협약

01

공정방송 강화

권력 감시 위축 '입막음 소송'에 대한 조합원 보호장치 마련
공정방송 구현을 위한 보도·제작의 독립 및 자율성 명문화
상급자에게 설명 요구 및 의견 제시 권한 명문화
부당 지시 거부권 명문화
국장 임명동의제 강화·정책간담회 정례화

02

근로시간 단축·근로조건 개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며 워라벨을 중시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주4.5일제)으로 단축
부당 징계로부터 조합원 보호 강화
다양한 근무형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03

양성평등·일과 가정 양립 지원

채용·보직자 발탁시 양성평등 구성 노력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기간 확대 및 현실화
맞돌봄 문화장려를 위한 근무 유연화
성폭력 피해자 우선 보호 및 지원 강화

04

인권·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인권침해 금지
회사내 차별 금지 명문화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원칙 마련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적 사생활 감시 금지



05

경영 투명성 제고· 조합 활동 보장

이사회 의결사항 등 주요 경영정보 투명 공개 요구
노동이사제 도입 노력 명시
합법적 조합활동 보장 및 강화
합법적 범위 안에서의 조합 운영비 지원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MBC의 보도·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노동인권과 젠더 이슈에 대해 <외부 모니터링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모니터링 보고서가 아니라 현업에서 활동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MBC 보도·제작 프로그램이 놓친 점이나 보완할 점, 발전시킬 점 등을 듣는 것입니다.

노동인권과 젠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최근 사회·문화적 상황에서는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된 기준보다 더욱 다양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재·제작 과정에서 모든 기준을 고려하면 좋겠지만 마감 시간과 방송 분량 등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외부 모니터링 보고서>는 조합원들이 노동인권과 젠더 분야를 취재하고 제작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공영방송이 노동인권과 젠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민실위 메모를 통해 모두 세 차례 발행될 예정인 <외부 모니터링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는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이, 젠더 분야는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이 맡았습니다. 첫 <외부 모니터링 보고서>는 9월 중 민실위 메모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계적 중립 탈피 환영"

첫번째 보고서에서 탁종열 소장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하청노동 이슈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각종 신문이 노동부, 산업부장관의 "불법 파업 중단" 담화와 행안부 장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 발언을 그대로 전한 데 반해, MBC는 중계식 보도 대신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을 자세히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회사, 정부의 입장만을 소개하는 '기계적 중립'에 빠지지 않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단단계 하도급의 문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실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발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노동인권문제는 노동자를 둘러싼 금융과 산업 구조 등 경제적 측면, 그리고 복지나 법령 등 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어떤 근본적 원인이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게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금융의 관점으로 보면,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탁 소장은 말합니다. "산업은행과 정부는 이번 파업을 유발한 당사자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적 문제를 자본으로 해결하려다 위기만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탁 소장은 지난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최근 조선업 호황의 불확실성'이나 '조선업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 등 어떻게 경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차 가해에 위축 말아야"

젠더 분야의 첫번째 보고서는 소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권김현영 소장과 기자·PD 조합원 등 5명은 차담회를 갖고, 성폭력 관련 취재·제작 과정에서 고민했던 문제와 궁금증을 나눴습니다. "우려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깊은 얘기가 나왔는데, 권김 소장은 "2차 가해가 기자와 PD를 위축시키는 담론이 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말은 사건이 언급되길 원치 않는 가해자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 피해자에게 묻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좋지만,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설득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7월 인하대 사망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표기'와 '단어선택' 문제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보도 다음 날까지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성별 표기에 대해서는 "선정적이었던 타사의 최초 보도가 일으킨 잘못된 열기를 빼는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 여학생'과 '가해 남학생'을 같이 써주는 것은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성별을 없애는 것이 성평등이 아니며, 기사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별 표기가 상황을 더 정확히 전달한다면 균형 있게 써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